



전주대 한문교육과 교수들, 제자사랑 장학금 기탁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소현성, 백광호, 김형술, 김하라, 이남중 교수가 '제자 사랑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학업을 독려하기 위해 교수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형술 학과장은 "이 장학금은 우리 교수님들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며, "스승의날을 맞아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어 더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 한문교육과는 최근 3년간 중등학교 한문 입문고사에서 2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 부녀회, 탄소중립 캠페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회원들은 18일 '기후 위기 2050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강조하며 불사용 절약,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 플러그 뽑기, 계단 이용하기, 자연에너지 활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심기, 급출발·급가속·급감속 하지 않기, 친환경 마크 제품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채식 권장 등 지구를 구하는 슬기로운 행동수칙을 홍보했다.
황승일 회장은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며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는 평소 저소득학생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 집수리, 어르신 이마용 봉사 등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청 직원들, 농촌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에는 도봉동 직원과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송동면 안계마을 과수농가를 찾아 복숭아 봉지 싸우기에 서투르지만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성가족과도 지난 17일 대강면 도곡마을 복숭아 농장을 찾아 복숭아 농장이 처음인 직원부터 그동안의 일손돕기 경험이 쌓인 직원들까지 최선을 다해 열매쪼기에 구슬땀을 흘리며, 주생면과 재정과 직원 20여명도 18일 주생면 상도마을에 위치한 1.0ha 규모의 한 복숭아 농장을 찾아 복숭아 열매쪼기, 봉지 싸우기 등의 작업에 적극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학생 9명에 장학금 지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용진)는 올해 9명의 학생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2016년부터 매년 노동시민사회운동 등에 공로가 크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의 자녀 또는 당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장학증서는 17일 이후 택배 발송하며, 장학금은 27일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010년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9인 동아팀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장학금에 쓰기로 결정, 매년 전교조 결성일인 5월 28일 즈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삼천2동 될 것”

‘두부사랑’ 최승해 대표, 삼천2동에 보리쌀 200포 기부

전주시 삼천동에서 ‘두부사랑’을 운영하는 최승해 대표가 18일 삼천2동 주민센터(동장 이희숙)에 200만 원 상당의 햇보리쌀 200포를 기부했다.
삼천2동에서 20여 년간 두부공장을 운영해 온 최대표는 현재 삼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천2동에서 운영 중인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에 매주 두부와 콩나물을 6년째 지원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국제코리타 3670지구와 JTV전주방송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초아의 봉사대상’에서 명예로운 대상을 수상하며 상금 1000만 원을 수상했다. 최 대표는 수상 당시 상금 전액을 삼천2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김윤상 기자



그 첫 번째 후원으로 이날 햇보리쌀을 기부했다.
두부사랑 최승해 대표는 “타 지역 출신임에도 삼천동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제2의 고향 삼천2동 주민들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다”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삼천2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 스포츠토토 예방 캠페인 전개

한국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센터장 이희경)는 18일 스포츠토토코리아와 함께 전주시 스포츠토토 판매점 점주 및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센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박문제 선별과 자가진단, 현장상담, 상담전화 1336과 네티즌 이용 정보제공, 홍보물 등을 배포했다.
또한 스포츠토토 판매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과몰입 유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건전 운영 서약서’ 서명과 소액으로 건전하게 투표권을 구매하겠다는 건전 구매 서약서 작성 등 스포츠토토 판매점 점주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 활동을 펼쳤다.
전북센터 운영속 운영위원장은 “최근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판매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며, 도박문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 /정은성 기자



관리센터가 지정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북지역 문제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치유 상담 서비스와 예방 교육 및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상담기관이다. 도박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국번 없이 1336을 통한 전화상담과 온라인 네티즌(http://netline.kogor.kr) 사이트를 통해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무주 안성지사보협의체, 특화사업 ‘반려식물과 소활행’ 추진

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정공동위원장 박선옥)는 2022년 특화사업 ‘반려식물과 소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활행’은 일상에서 작지만 진정한 행복이다.
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안성면 맞춤형복지팀 등은 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생활살해를 점검하고 식물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18일 협의체 위원들이 구입한 식물을 사회분배에 옮겨 심는 작업을 펼쳤다.
복거장장 및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부부 등 20가구가 사업대상이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식물 지원과 함께 5회기 동안 협의체 위원 등이 가정 방문해 식물상태를 확인하고 키우는 방법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대상자 복지교육을 파악해 침구클리닝, 밀키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선옥 행정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우리 /정은성 기자



이웃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며 마음에 평안함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유아교육진흥원(원장 박순정)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수는 35개 연수주제 중에서 필요한 연수를 신청받아 선정된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수주제에 맞는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박순정 원장은 “작년에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계속 운영하게 됐다”면서 “호응이 좋은 현장 맞춤형 연수를 계속하게 돼 보람되고, 앞으로도 유치원 연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평화2동 지사협,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전주시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애)는 1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병덕)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주변 상가들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정기기부 동참을 유도했다.
명덕 위원장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평화2동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혁신동 · 달콤떡, 발달장애우 케이크만들기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주민센터(동장 이성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8일 발달장애우와 함께하는 “우리도 잘 할 수 있어!! 혁신동 달콤떡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케이크 만들기 행사는 오감 만족 체험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정서안정과 사회적 재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주 달콤떡(출판로3)’에서 재료 일체와 재능 기부로 진행되어서 그 의미를 더 했다.
전주 달콤떡 전진영 대표는 “혁신동주민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한다는 게 저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번 행사에 가까이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재능 기부 행사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참석해 좋은 일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역량강화 교육

남원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에게 투약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치매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맞춤돌봄기관 등의 11개 소 요양보호사와 생활지도사 308명이며, 교육은 관내 치매환자 중 재가(在家) 환자들의 치매치료제 복용지원 등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으로의 이행기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남원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원시치매안심센터 도입한 차별화된 치매환자 관리 방안이다.
교육내용은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환자 증상별 대처방법, 치매약 복용의 중요성, 치매가족에 대한 이해와 응호적인 태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현장 종사자들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응호적인 태도 확립하며 돌봄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근 남원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역량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치매환자 투약관리를 통해 치매환자 중증증상을 예방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동면, 마을복지계획수립 교육 실시

남원시 산동면행정복지센터(면장 고희석)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17일,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해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재운)를 비롯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복지계획 수립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장 손미혜) 강사의 PPT교육을 통한 마을복지계획의 필요성, 지역주민의 주요 욕구발굴 방법 및 실천과정, 복지지원 발굴방안 등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지사협은 주민지킴이 공공서비스 구축 및 지원, 신규 복지사업 발굴 노력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복지계획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산동면의 복지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욕구조사, 의제 발굴 등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고희석 산동면장은 “지역주민 욕구와 인적·물적자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